



꺾직한 재판들...5월, 광주 법원에 쏘리는 눈

5월, 광주 법원이 '꺾직한' 주요 사건들의 재판을 시작하면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졌...

전두환, 41주년 맞는 5월에 광주로-광주 법원이 5월 진행할 재판 중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 사건은 단연 전두환(90)씨의 5·18 사...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10호 법정에서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의 출석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출석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인정신문은 성...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10일

인정신문 첫 재판 소씨 출석 가능성 높아...6일 방청권 응모

'조계종-태고종 선암사 파기환송심' 26일

'전통야생체험관 철거' 놓고 지리한 공방...5심까지 갈지 촉각

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주거,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재판부가 바뀌면 인정신문을 해야한다.

현행 형사소송법(277조3호)은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차대로라면 41년 전,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주범으로 꼽히는 전씨가 41년 만에 다시 '5월 광주'를 찾는...

셈이다. 법원도 전씨 재판을 앞두고 방청객이 몰릴 것에 대비, 비대면 방식으로 방청권을 추천하는 등 준비에 분주하다.

광주지법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1800-4291)로 방청권 응모를 받고 응모 시간 중 신청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면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법원은 추첨을 통해 방청할 일반 시...

민 3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계종-태고종, 선암사 '4심' 시작=조계종과 태고종이 맞붙은 선암사 전통야생체험관 협관을 둘러싼 파기환송심도 5월 본격 시작된다.

광주지법 민사 3-2부는 오는 5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를 상대로 한 전통야생체험관 건물철거 등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을 연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순천시와 한국불교태고종 측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기존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순천시가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선암사 부지에 전통야생체험관을 건립했는데, 선암사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토지 사용을 허락한 태고종 선암사가 아...

닌 조계종 선암사인 게 다름의 발단이 됐다. 지리한 소송전이 시작됐고 1심은 조계종 선암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체험관이 들어선 토지 소유주는 조계종이지만 실제로는 태고종이 세워 운영해온 절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소유자는 태고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조계종측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법원 판단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때문에 파기 환송심 결과에 불교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자칫 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을 거치며 5심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미안마 힘내요” 광주 남구민 1013만원 성금

광주 남구 주민들이 미안마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는 마음을 성금으로 모아 현지 활동가에게 전달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청 강실에서 '미안마 민주화지지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남구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단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미안마 광주연대 및 (사)광주여성아...

시아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남구청 직원들과 남구의회, 관내 주민들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싸우고 있는 미안마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성금 모금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미안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청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구민들은 적극적인 성금 모금활동을 펼쳐

1013만 6000원을 모았다. 이번에 모은 성금은 미안마 광주연대와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후원계좌를 통해 미안마 현지로 전달된다.

김병내 구청장은 "41년 전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겪은 시민들과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나선 미안마 국민들은 결이 같은 사람들"이라면서 "미안마의 찬란한 봄이 조속히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옛 성인들 추모 석전대제

29일 오전 광주향교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옛 성인들의 학덕을 추모하는 춘기(春期) 석전대제가 진행됐다. 석전대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전국 모든 향교에서 춘기와 추기 2차례 봉행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학원·과의 종사자 코로나 PCR 검사

전남교육청, 1만765명 대상

불법 개인과의교습자로부터 학생 2명이 추가 확진된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학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남 시·군 교육지원청 및 (사)학원총연합회전라남도지회 지역분회장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상회의를 갖고, 특별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진단검사에 나서는 등 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도와 협력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와 개인과의 교습자 1만 765명 전체에 대해 PCR 검...

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자발적 참여를 위해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남도지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염우무 조기발견을 위한 선제적 PCR 검사는 다음달 7일까지 관할 주거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

김춘호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막기 위해서는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인교습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불법과의교습을 위해 학원자율정화위원회 및 학원자율방역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방역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 총감독 공모

광주 동구는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역량 있는 총감독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추억의 충장축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새로운 축제 개최 방식 모색, '힐링(치유)' 관련 축제콘텐츠 개발 등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모범적인 새로운 방식의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올해 축제는 장기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 해소, 위기 극복 의지 반영, 시민과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동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충장축제를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고려한 '혼합분산형'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주 행사장과 5-6개소의 보조행사장을 마련해 방문객들을 분산시키고, 온·오프라인 혼합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등 보다 특색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장축제 총감독은 ▲코로나19 대응 축제 전반 책임기획·연출 ▲축제 발전 방향 제시 ▲혼합형 프로그램 운영 총괄 ▲축제장 분산형 공간구성 ▲축제 이슈화를 위한 대외홍보방안 마련 등 충장축제를 총괄·연출하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69주년 창간 6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열린 군산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의회 군산시의회